1. 일상성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성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 사회의 도시적 특징이다. 현대성과 일상성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의 양 측면이다.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출근전쟁, 지루한 업무, 늘상 보는 얼굴들에 권태와 피로를 느끼면서도 도시의 샐러리맨들은 이 일상성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있다. 왜냐하면 일상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실직이나 퇴직을 의미하며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단히 일상성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주말에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는 인파, 월드 컵에 열광하는 관중등..... 농경 사회에서, 봄에 씨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반복적인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어도 거기엔 현대인들이 느끼는 나른하고도 불안한 일상성은 없다.
그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성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가 분석한 일상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첫째 도시화, 둘째 양식의 부재, 셋째 축제의 상실, 넷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에따른 광고의 중요성, 다섯째, 글(언어)을 통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보았다.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일상 생활의 창조적 실천성'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사회 구조에 매몰되지 가능성을 이성이나 자유의지등에서 찾지않고 일상 생활의 창조성에서 찾기 때문이다. 푸코가 말하는 판 옵티콘에 의해 훈육되고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판 옵티콘을 정치적, 제도적 차원이 아닌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재 전유, 왜곡, 변형, 재가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16세기 이후 서구의 도시는 전통과 삶의 다양성을 배제시키고 기능주의적인 개념아래 전체화 시켜버렸다. 도시 계획가나 지도에서 나타나는 개념도시들은 일종의 판 옵티콘이다. 그러나 개념도시의 훈육을 피하려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고 꾀를 쓰며 공간을 창출하려는 실천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그가 일상의 실천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중의 하나가 도시를 걷는 것이다. 걷기는 도시계획의 전체주의와는 다른 지방 권력이 되고 이를 통해 공간에 얽힌 잊혀진 기억과 의미들을 살림으로써 황량한 도시에 살아갈 의미 공간을 창출한다. 나아가 걷기는 원초적 경험을 재생하여 움직이는 도시 은유적인 도시를 만들어간다. 결국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걷기 실천이라는 것이다.
탐구의 지향점 : 첫째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이해와 기준에 맞추기위해 지배 문화, 경제의 내부에서부터 수많은 변형을 만들어 내는것을 주목한다. 둘째 , 사회 경제적 질서를 조직하고있는 침묵의 과정에 대한 소비자 (피지배자)편에서의 대응을 이루는 방법, 즉 작용 방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 문화적 기술이 조직한 공간을 이용자들이 재전유하는 수많은 실천들로 구성된다.

- 예술은 새로움의 창조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식의)라기 보다는 주어진 제도와 굴레, 강요된 질서등을 재전유하는데서 드러나는 것이다.

2. 도시 속에서 걷기

멀리서 훔처보는자. ..... 세계 무역센터 빌딩 위로 올라가면 관음하듯 멀리서 훔처보는자 voyeur로 변한다. 그는 거리두는자가 된다. 그를 소유했던 매혹적인 세계는 그의 눈 앞에 보이는 텍스트로 변한다. 이로써 그는 텍스트화된 세계를 읽을수 있고 신처럼 내려다보는 태양의 눈이 될수있다. 더 넓은 범위를 보려는 신비주의적 충동의 고양 , 다름아닌 시점이 되려는 욕망, 그것이 바로 지식의 허구, 텍스트의 허구이다.이 허구는 뒤엉킨 일상 행위들로부터 스스로를 빼내서 소외 시킨다. 기술적 발전은 '모든것을 보는 권력'을 만들어 내었다. 420m의 이 탑은 맨해튼의 뱃머리 역할을 하면서 허구를 구축해 낸다. 그 복잡한 도시를 '읽을 수 있으며' 불투명한 유동성을 투명한 텍스트로 고정화 시키는 허구를...

도시를 걷는 자..... 도시의 일상 생활자들이 살아가는 곳은 가시성이 멈추기 시작하는 '저 아래'다. 그들은 걷는다. 걷는다는 것은 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 형태다. 이 도시 공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서로 부둥켜안고있는 연인들이 그러한 것 처럼 맹목적이다. 그들은 이 도시공간 전체를 투명하게 읽지 못한다. 그들은 공간을 읽지않고 실천한다. 이 공간 실천은 인간학적이고 시적이며 신비로운 공간 체험이고 법석거리는 도시의 특징인 불투명하고 맹목적인 유동성이다. (시각적이고 파노라마적인, 혹은 이론적인 구축물인 '기하학적', 혹은 '지리학적' 공간과는 전혀 다른 실천이다.)

지도는 지도를 가능케한 작용을 보이지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고정화는 망각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지리학적 체계는 행위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긴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망각시키는 특성을 드러낸다.

시인은 망각에 저항하여 투쟁한다.

"나는 내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것들을 망각해 버린다. 아침 산책길에서 본 산딸기의 맛, 어느날 혼자 앉아있던 저녁의 어스름, 문득 깨어난 초겨울의 새벽 한기, 문득 찾아온 고요한 마음의 평정, 혹은 초조, 전화 벨 소리, 매우 하찮은 대화, 조간 신문의 일면 기사, 어제 거리에서 본 혼자 중얼거리던 미친 여자, 스스로 말하고 소음을 내고, 스쳐지나가고, 가볍게 우리를 건드리고,마주치는 이 모든 것들을....."